

광주여대 U대회 체육관 편법 대여 의혹

수천만원 받고 이웃돕기 바자회장 임대...알고보니 ‘땃치리 판매장’으로

소년소녀가장돕기연합

업체들과 이중계약 논란

광주여대는 “미처 몰랐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체육관’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광주여대가 특정 ‘땃다방’ 의류 업체에 수천만원을 받고 편법으로 공간을 대여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광주여대는 미처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체육관 자체가 당초 운영 취지와 달리 ‘땃치리’ 행사장으로 전락,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광주여대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8월 2015광주하계U대회 체조 경기장으로 사용된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체육관’의 위탁 운영을 광주여대에 맡겼다. 위탁 기간은 오는 2020년 7월까지다.

광주여대는 최근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광주전남연합으로부터 275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지난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소년·소녀가장돕기와 패션중소기업 정상화’를 위한 긴급 공매 매각전’ 공간으로 빌려줬다. “바자회 성격의 행사이기 때문에 빌려줬다”는 것이 광주여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폭설피해 긴급 공매매각’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건 이번 행사가 시민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바자회보다는 의류업체들의 이월 상품 ‘땃치리’ 행사라는 지적이다.

광주여대와 계약을 맺은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광주전남연합이 ‘바자회’ 행사



광주시가 800여원을 들어 건립한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체육관’을 광주여대가 위탁 운영하면서 ‘땃다방’ 의류업체들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편법으로 대여해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8일부터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의류 판매 행사가 열리고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로 위장한 채 의류와 신발 등을 판매하는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 상인들은 “해당 업체가 대규모 재고 의류 등을 땃치리하는 방법으로 수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 지역 소상공인들만 상대적으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며 “사전 신고 없이 판매행위를 한 것은 불공정행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절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땃치리 행사를 알리는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이 광주시 도심 곳곳에 나붙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여대와 직접 계약을 맺은 전국소년

소녀가장돕기 광주전남연합이 다른 업체들과 이중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A(49)씨는 “해당 업체가 장소 섭외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수천여만원의 뒷돈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공공체육시설물을 놓고 뒷돈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고 주장했다.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광주전남연합 B대표는 “업체 측에 4000만원을 받아 2750만원은 대관료로 입금했으며 향후 주차요금 등을 정산할 경우 남은 금액이 없다”며 “순수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광주여대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위탁관리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한 상황 판단을 못했고, 의미 있는 바자회라는 판단이 들어 비수기 수익성 차원에서 임대를 해줬다”며 “이번 임대차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이중 계약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계약서에 따라 행사를 취소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5광주하계U대회 진행을 위해 건립된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체육관은 모두 800여억원이 투입됐으며,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2만7885㎡에 관람석 8337석을 갖췄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위안부 협상 규탄 광주시민대회 열어

수요시위 계속 이어가기로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9일 광주 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굴욕 협상 규탄 광주시민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매주 ‘수요시위’를 개최하는 등 규탄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성단체, 민주주의 광주행동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정부의 역할은 피해자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최종적인 해결까지 약속하고 말았다”며 “절차적인 면에서도 내용적인 면에서도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결과이므로 폐기만이 답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1992년 일본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묻는 ‘관부재판’ 소송 원고로 참여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8) 할머니가 자리해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양 할머니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난 24년간 싸워왔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며 “매주 수요일마다 소녀상 앞에서 하는 집회를 통해 우리의 소망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매주 수요일 낮 12시 광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서울과 동시에 수요시위를 이어간다. 또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전국행동’(가칭)과 연계해 굴욕 협상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초등생 체벌 사망’ 체험시설 운영자 1심보다 중형

“교육목적 망각...죄질 나쁘다” 5년 선고

체벌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수 불법 민간체험교육시설 운영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중한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여·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는 단지 어른을 농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육 목적을 망각한 채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지칠 때까지 때리고 밤새 재우지 않았으며 24시간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아동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가 운영하는 시설이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이 아니라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황씨는 2014년 12월25일 초등학교 6학년인 A(12)양의 도박 문제를 상담하다가 A양을 오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무고죄 관련 판결 2제

“성폭행 당했다” 거짓말 20대여성 실형 선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을 고소한 데 이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무고와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2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점 여종업원이었던 김씨는 지난 2014년 6월 ‘업주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C씨에게는 성폭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손목을 다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자신

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는 그 은밀성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면서 “김씨의 행위로 한정된 수사·사법 자원이 낭비돼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점을 감안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교통사고 충격 허위진술 했다면 무고죄 해당 안돼

사고 충격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면 그 진술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2월2일 오후 7시55분께 무안-광주고속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사고 뒤 김씨와 동승자들은 차량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후 뒤따르던 차량이 전복된 김씨의 차를 추돌했다.

김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량이 전복돼 사람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 더 다쳤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충격으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질문을 하면 혼란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해 허위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은 무고죄의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추궁에 의해 자발적으로 진술하지 않아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고죄에 대해 “타인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신고는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 여종업원 사망 사건’

검찰, 업주 구속영장 청구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해당 유흥주점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여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폭행,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로 유흥주점 업주 박모(여·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

박씨는 여수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술집 A(여·34)씨 등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종업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20일 새벽 0시42분께 뇌사에 빠진 뒤 같은 해 12월10일 밤 9시40분께 숨졌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 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결혼상태 못찾는 이유...남자 ‘짝사랑’ 여자 ‘조건’ 집착 탓



○...우리나라 미혼 남녀가 결혼 상태를 찾는 데 가장 큰 장애요소로 남성은 ‘짝사랑’을, 여성은 ‘조건’에 대한 집착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와 눈길.

○...10일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온리유가 지난 4~9일 전국 미혼 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남성은 결혼 상태를 찾는데 가장 어려웠던

이유가 ‘짝사랑 상태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29.0%)이었고, 이어 ‘이상형은 나를 싫어해서’(22.4%), ‘결단력 부족’(20.1%) 등이었다는 것.

○...반면 여성은 ‘특정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로워서’(28.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거 만난 이성 중 최고 수준을 고집해서’(23.2%), ‘비현실적 배우자 조건 고집’(20.1%) 등의 순으로 응답. /연합뉴스

신축 상가원룸 매매 <전대 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7층 상가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법 른 경 매		8층 상가건물 정매 북구 오룡동 (삼성전자 정문 앞)
(4층) 신축원룸 (코너자리, 아파트 정문, 마트 부근)		1층 (커피숍 입점 완료) 2층~5층 (사우나,주택) 6층~7층 (설계사 건설사)		(주)대신경매	수익성 상가 (근린주택,주택)	☆ 감정가 35억 (대출 30억) ☆ 분할 등기시 향후 60억 가치 ☆ 2016년 1월 12일 경매일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6개, 투룸 2개) 4층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 월 수익 1,00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 (보 1억5천만, 융 6억) 매가 15억5천		1. 동구 계림동 (다가구 원룸) (토 90평, 건 203평) (1층~4층 총 룸 18개) 임대수익, 투자 가치 적합 계림동 홈플러스 남측 근처,재개발지역 부근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4억4천	① 북구 신안동 (토 53평,건140평)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1억6천 ② 서구 금호동 (토63평,건370평)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3천 ③ 광산구 서봉동 (토202평,건84평) (주택)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 ④ 남구 월산동 (토 34평,건43평) 감정가 1억3천 → 최저가 9천4백	1층 (상가 130평) 2층~7층 (고급 오피스 56개) 8층 (주택겸 사무실 41평)
☆ 보 5,000만 - 월 500만 ☆		①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1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7천 ②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2개-투룸12개,원룸6개) (보4천5백,월720만) → 매가 7억8천만 ③ 용봉지구 원룸 (미래도 AP,T 코너) 룸~20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		2. 동구 수기동 (토 130평, 건 320평) (1층,생활시설,창고-2층~3층,소매점-4층~5층,사무실) 감정가 10억 → 최저가 4억8천만	수익성 상가 (다가구 원룸)	경매 교육
매가 6억 8천만 (융 1억2천)		3. 전남 순천시 황전면 (토 05평, 건 221평) (1층,음식점 - 2층 커피숍 - 3층 사무실 - 지하,보일러실) ※구례구역 부근, 섬진강 부근으로 경치 좋음 감정가 4억2천 → 최저가 1억5천		3. 전남 순천시 황전면 (토 05평, 건 221평) (1층,음식점 - 2층 커피숍 - 3층 사무실 - 지하,보일러실) ※구례구역 부근, 섬진강 부근으로 경치 좋음 감정가 4억2천 → 최저가 1억5천	① 서구 광천동 (토 54평, 건 155평) 감정가 4억 → 최저가 2억8천 ② 광산구 월계동 (토 86평, 건 161평)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2억3천 ③ 서구 쌍촌동 (토 90평, 건 364평)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6천 ④ 서구 양동 (토174평, 건 424평) 감정가 10억 → 최저가 7억	바로 실전 교육듣고 수익 창출 가능
010-6670-9800 (062)-511-7800		4.동구 학동 (토 114평, 건 60평) ※학운동 주민센터 북측 인근 약 2미터 도로 접으로 차량 통행가능 감정가 2억6천 → 최저가 2억6천		☆ 경매 투자 ☆ → 공동투자 가능, 단독 투자 가능, 후순위 설정, 연이자 15%	아파트 추천 북구 신운동 (침단지구) (토18평,건25평) 총 15층 중 7층 감정가 3억5백만 → 최저가 2억1천3백만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경매 입찰 매매, 임대 개발 기획까지)
				토지 추천 북구 장동동 (토지) 291평 - 감정가 2억 → 최저가 2억		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
				010-6834-4800 (062)-527-7600		